

교 회 목 표

신앙의 예배
창조인문양상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골 3:4)

대한예수교 총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2 충헌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종교개혁주일에 배풀어지는 2002년도 제5차 학습 및 세례식

다음주일(11월 3일) 1-5부 예배는 성찬예배로

이번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이면서, 동시에 학습 및 세례식이 거행되는 주일이다. 오직 성령으로 돌이켜라는 순신한 신앙의 선배들의 물려받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교리를 유산으로 물려주고, 그러한 신앙의 고백에 따라 제자 학습 및 세례식을 배풀게 되었다. 대상자는 학습 19명(남자12명 여자7명), 세례 41명(남자22명, 여자19명), 유아세례 33명(남자23명, 여자10명), 입교 6명(남자3명, 여자3명), 그리고 개종 2명(남자1명, 여자1명)이다. 또한 다음주일(11월 3일) 1-5부 예배에서는 주님의 죽음의 기쁨을 기념하는 성찬식이 거행된다.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며 참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란다.

말고 오묘한 그 말씀 / 10월 26일 금요일

구약에 나타난 선교 -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본론)

2. 구약에 있는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

사편 67편의 선교적 관점

모든 시편은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선교적 메시지를 노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신과 높고 크고 그리고 자비하신과 사랑하기를 노래하고 있다. 그 중에서 22권, 33권, 66권, 72권, 98권, 117권과 145편은 열방을 향하여 노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시편 67편, 98편 그리고 100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편 67편

시편 67편은 전체가 7절로 되어 있는 짧은 시편이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전파하기를 소원하는 노래로서, '선교사의 노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 시편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곧 아브라함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 복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편 67편의 주제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전제할 때, 이 시편의 신학적 근거는 민수기 6장 24절~26절에 있는 이란의 축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호와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자기 시기를 위하여 여호와께는 그 얼굴로 내게 비취사 은혜 배부르시기를 위하여 여호와께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다면, 시편 67편의 이 말씀은 그의 사역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시편 67편의 '여호와' 대위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인 '하나님'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나라, 그리고 모든 창조물과 맺은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시편 67편 1절의 '우리를 구원하 여가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으로 우리에게 비취사'라는 구절을 보면, 민수기 7의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자기시기'라는 축복의 기도가 '우리'로 바꾸어졌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낙 에게가 하는 기도(또는 우리에게로 비취사)는 현실이 시편 67편 1절에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시 46:7-7, 31:16-17, 80:3, 71, 98) 여기에 담긴 내용 모두가 민수기 6장 24절~26에 있는 축도에서 근거를 가진다.

그렇다. 시편 67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아론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위에 축복하는 그 내용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임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민들을 주를 찬송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만민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시니 기뻐하시나이다"(시 67:3-4). 그러므로 시편 67편을 '선교를 위한 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세계에 있는 만민들에게 복을 주시라는 축복의 기도가 확장된 목적은 시편 67편 2절에 나타난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시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은혜를 배부리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자들을 축복하시는 이유인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생각할 때, 시편 67편은 창세기 12장 3절에 나타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과 일치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은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만민이시며 어떠한 인간의 능력도 따라갈 수 없는 막강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편 67편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히 여가사 복을 주시라는 축복의 기도가 풍성하게 하심으로, 땅 위의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도가 전진으로 이루어졌음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편이 오순절에 불려졌던 것은 당연하다. 구약시대 유대인의 성지자극이 예언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유대인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일도 오순절에 일어났음을 생각해보면, 시편 67편과 오순절 228~231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강림, 또는 선교사적 메시지의 관련은 매우 놀랄 만하다. 오순절은 지난 해에 주한 것을 가지고 모이는 절기이다. 그러므로 시편 67편은 주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향하여 원하시는 영적인 추수의 상징으로 나타냈으며, 보충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세 가지 목적

시편 67편은 세 가지 이유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증명하고 시험하도록 노래한다. 이

금주 수요일(10월 30일) 2부 예배는 제5대 집사 45인과 권사 79인이 각각 집사와 권사로 장례받고 취임하는 위임식이 진행됐다. 무엇보다 이 시에는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것이며, 이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충헌의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위임식을 진행하기 될 위임묵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란다. 위임되는 모든 이들은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주를 찬양하는 선한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주시길 바란다.

임직 예배

금주 수요일(10월 30일)

제15대 집사 장림, 제43대 권사 취임

세 가지 이유는 이미 시편 구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2장 2절~3절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히 여가사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절되기 위함이라 아니라, 2절에 나타난 것처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시라 위함이다. 이 고백의 의미는 열방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알고 싶어하고 싶어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길은 항상 은혜의 길이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길임을 알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것은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총이 구약시대의 이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되어드리는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확장되게 하라하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생각할 때, 1절 말씀은 열방의 모든 사람을 초청하여 모든 일을 온전케 하시는 구구주를 찬양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송영으로서,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여준다. 사할 이 찬양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찬송이다. 이 찬송은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믿지 않는 자들은 12절과 13절의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으며, 모든 유대인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 얼굴을 대하게 될 때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방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는 법전에서 선포하시는 심판자가 아니라, 의로 다스리시는 왕같은 통치자이다. 시편 23편 3절에서 나타난 위대하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72편에 있는 약속처럼, 해가 뜨고 난 여섯째 날에 다스리시 것이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에서부터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시며 온 세계를 다스리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마땅히 지구상의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로부터 주하시고 구원자이심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시편 67편이 다시 한번 찬송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다(시 67:5).

이스라엘을 부르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자제를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증명할 수가 있다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열방을 향하여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계심을 증명하도록 부르신 것이다. 땅이 소산을 내어 창고로 넘치게 되었으니(시 67:6), 이것이 과연 민수기 6장 24절~26절에 기록된 축도의 응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질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넘치게 복 축복하신 것일까? 그 대답은 오순절 시편 67편 2절에 드러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찬양되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고 계심을 드러내는 특별한 증거를 만수시킬 이유는 없을 것이다. 물질적인 부요함을 가져다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은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영적인 후원을 가져다주시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편 67편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기대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일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다. 이것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임을 모르고 하고 갈아엎 할 오직 한 것이다. 열방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찬양하기를 원하도록 만들어나가는 소명의 길이다.

하나님을 영화하는 선교적 삶

이스라엘을 원하신 선교사적 사람은 창세기 1장~11장에서 보편적인 범위를 찾아볼 수 있으며, 창세기 12장 3절에서 더 확장되게 주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유언으로서의 메시지는 이사야 42장과 49장에서 가장 명확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만방에 알려 되도록 임명을 받은 종으로 선포된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이 자신을 두려워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말씀하셨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는 두들음이 두 가지 의미가 사용된다. '두들기다'와 '경외하다' 이 그것이다. 즉, 두들기면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선하고 믿는 것이다. 그러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이해와 삶과 경건한 생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시작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열방을 향하여 증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도록 태함을 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믿기 때문에 도통 할리만 되는 것이다.

At the Lord's table

(1 Corinthians 11 : 27-34)

"Therefore whoever eats the bread or drinks the cup of the Lord in an unworthy manner, shall be guilty of the body and blood of the Lord. But a man must examine himself, and in so doing he is to eat of the bread and drink of the cup. For he who eats and drinks, eats and drinks judgment to himself if he does not judge the body rightly. For this reason many among you are weak and sick, and a number sleep. But if we judged ourselves rightly, we would not be judged. But when we are judged, we are disciplined by the Lord so that we will not be condemned along with the world. So then, my brethren, when you come together to eat, wait for one another. If anyone is hungry, let him eat at home, so that you will not come together for judgment. The remaining matters I will arrange when I come."

Our Holy Communion service was made by the Lord Jesus Christ. He was the one who first started it. Jesus desires us to share the bread and wine, and today we have the privilege to come together at His Table. Jesus specifically explained that His body and His blood are meant for us. As such, at the Lord's Table we have to eliminate all unnecessary things. Before we partake we have to bring everything out, so that we can eat and drink in a worthy manner. What kinds of things need to be brought out? Let's look at four crucial areas.

SIN. All your sins need to be confessed. All your sins must be brought out at His Table before you partake. Jesus died for your sins. His death was for your redemption. You have to bring out all your sins at His Table before you take His body and blood. You have to appreciate the real meaning of the Gospel. That's why it's necessary for you to search yourself and honestly bring everything to His Table. At this hour, this moment, you have to acknowledge your sins to the Lord, so that you can be forgiven and cleansed,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righteous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1. Jn. 1:9). Jesus died for this reason, this purpose. Before He died, He made this Holy Communion service. If you judge yourself rightly, you will not be judged (v. 31). You have to watch yourself. Don't get cursed. If you confess your sin, He will free you from all bad things.

GRUMBLES. You have to bring all your grumbling things, all your complaining problems to His Table. What do you think the Lord's Table is all about? He forgives you for your sins. That's why you have to celebrate His death. His death redeems your sins. By faith you have forgiveness from Him. You don't do anything. By faith He redeems you. Because Jesus Christ forgives you, you should forgive others. You must

not hold feelings of resentment against others. You must forgive others. Please don't grumble and complain. Jesus led a perfect life. He committed no sin, and yet they crucified Him. Did He grumble? No. Instead, He prayed,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Lk. 23:34). Amen. Jesus forgave those who trespassed against Him. How could you not?

BITTERNESS. You have to bring your bitterness, your anger, to His table. What's the necessity of the cross? It removes your bitterness. You're suppose to go to hell. Jesus moves us from hell to heaven. Why? Because He is the one who took away all bitterness. Do you want to compare His bitterness with yours? There's no comparison. That's why you have to focus on Christ and focus on the cross. You have to bring all your bitterness to the Lord's Table.

BURDENS. You have to bring your heavy burdens to His Table. Jesus calls out to you,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y-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Mt. 11:28). When Jesus died for you, He took the heaviest burdens. He took all burdens for all things! He cares for you. So don't take care of your burdens yourself and struggle and have a terrible life. Bring them to His Table. His cross is more than proof of how much He loves you.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see 1 Pet. 5:7). It matters to Jesus concerning you. Why should you worry? Bring all your heavy burdens to Him and He will take care of them.

My dear friend, the Lord's Table is so significant. Focus on the cross, focus on Jesus, and focus on your negative side. He will change it all to positive. Bring your sins, grumbles, bitterness, and burdens to His Table before you take the bread and wine. Then, you can celebrate as a changed person through His life. Please join the Lord's Table today sincerely with your faith. Amen. 

그리스도의 식탁에서

고전 11:27~34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함양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잡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렸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궁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김 성 판 목사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의 거룩한 성찬 예배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성찬식을 제일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 오늘도 그의 식탁에 함께 나아올 수 있는 특권을 누립니다. 예수께서는 특별히 그의 몸과 피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식탁에서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죄와 불평, 비통과 무거운 짐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태도로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가지 중요한 영역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봅시다.

죄(Sin)

여러분은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전에, 모든 죄는 반드시 그의 식탁에서 밝히 드러나야만 합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의 죽음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몸과 피를 받기 전에 그의 식탁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찬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정직하게 그의 식탁으로 모든 것들을 가져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시간, 이 순간에, 여러분은 주께로 와서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용서받고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 일 1:9). 이것이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이며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죽으시기 전에 성찬예식을 만드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를 용케 분별한다면, 판단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31절). 그러므로 반드시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증스러움에 빠지지 마십시오. 죄를 고백하기만 한다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불평(Grumbles)

여러분은 불평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 또는 불만스럽게 여겨지는 모든 문제들을 주의 식탁으로 가져와야만 합니다. 주의 식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것이 반드시 그의 죽음을 기념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의 죽음은 여러분을 죄악에서 속량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구속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불만을 가지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셨음에도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그가 불평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불평 대신에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 아멘. 예수께서 자신을 해치려는 자들을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통(Bitterness)

여러분은 비통함과 분노를 그의 식탁으로 가져와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모든 비통함을 제거합니다. 여러분이 지옥에 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모든 비통함을 멀리 던져 버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비통함이 그들이 겪은 비통함과 비교하기를 원하십니까? 절대로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십자가에 맞추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식탁으로 모든 비통함을 가져와야만 합니다.

무거운 짐(Burdens)

여러분은 그의 식탁으로 모든 무거운 짐을 가져와야 합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누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을 때, 그분은 가장 무거운 짐을 지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다. 그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는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려고 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몸부림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문제를 주의 식탁으로 가져오십시오. 주의 십자가는 주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고 그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주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그에게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벧전 5:7 참조). 예수께서는 여러분에 관한 일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모든 무거운 짐을 그에게로 가져오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모든 것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떡과 잔을 받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식탁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예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부정적인 면들을 바라보십시오. 주께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인 것들로 바꾸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떡과 잔을 받기 전에, 죄와 불평과 비통함 그리고 무거운 짐을 주의 식탁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주의 생명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으로서 주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진지하게 오늘 주의 식탁에 동참하십시오. 아멘

라마단에 대하여

호빵 안에 단팥이 없어요

점점 추워지는 요즘, 이제 거리 곳곳에서는 보기만 해도 따뜻한 호빵이 자신들의 탐스러움을 서로 뽐내고 있습니다. 호빵의 참맛은 따뜻한 빵 부분과 달콤한 단팥의 조화입니다. 이 맛을 아는 사람은 단팥이 빠진 호빵을 결코 먹지 않을 테지만, 처음 호빵을 먹어보는 사람이 단팥이 없는 호빵을 먹는다면, 분명 그 사람은 '호빵이란 원래 따뜻한 빵 부분만 있는 건가 보다'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롬 3:23). 또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엡 2:8~9).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희생을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할 것입니다(벧전 3:18).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호빵의 단팥입니다. 호빵에서 단팥이 빠져버리면 더 이상 호빵이 아니듯이, 우리 크리스천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떼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요일 5:11~12).

그런데도 우리 주위에는 이 중요한 단팥을 뺀, 빵만이 호빵의 전부인 줄 알고 그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을 신봉하는 '무슬림'들입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단팥의 맛은 물론이고 단팥의 존재까지도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들에게 호빵의 참맛을 보여주려고 그곳에 단팥을 들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드물지만, 또한 단팥을 들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맛을 인정하려는 모습들도 드물지만.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호빵의 정수인 '단팥',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들이 받아들이도록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이 무슬림들도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벧후 3:9).



이 '단팥'의 맛을 알지 못하는 무슬림들이 11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 한 달(라마단) 동안 삼 자제로 예배를 드리며 금식을 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 '단팥'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무슬림 형제·자매들이 분명하지 못한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한 달 동안, 이들이 진정한 단팥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현천부 선교팀)

"선교 기도회로 모입니다"

2002년 1·2차 단기 선교에 700여 명의 성도가 파송되어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금번 3차 단기 선교단을 파송하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며,

파송될 3차 단기 선교단과 복음이 전해진 1·2차 단기 선교지역을 위하여 함께 모여 기도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칼릴리움

시간: 주일 오후 4시~4시 40분

지역/ 1) 1·2차 단기 선교를 다녀온 성도 2) 3차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성도
3) 선교에 관심있는 성도

성경사 이야기

피터 데 이네카

새로운 과학 기술의 발달은 선교에 새로운 도전을 주고 유용하게 사용되어져 왔다. 그 중 방송은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지금까지도 잘 감당하고 있는 매체 중 하나다. 그러나 방송 매체의 이용은 고가의 장비나 그 제작 비용으로 인해 제정의 뒷받침이 없는 운영하기 힘든 사역 중 하나다.

라디오 선교 방송국도 그런 경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방송 선교회는 개인이나 다른 선교단체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단지 새로운 언어로 번역하여 많이 사용한다. 피터 데이네카 또한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여 철의 장막 뒤에 있는 자신의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피터 데이네카는 1914년 봄 16세의 나이로 돈을 벌기 위해 미국에 온 러시아 청년이었다. 그러나 그는 돈보다 귀한 생명의 복음을 들었고, 회심하였다. 그는 러시아에 돌아가 가족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난관을 기다리며 미국에서 슬라브족 이민들을 위해 사역하였다. 그러던 중 소련에 살고 있던 가족들이 심한 기근으로 3명의 형제와 2명의 자매가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머지 가족까지 모두 죽기 전에 하루 속히 복음을 전하길 더욱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었고 한 친구의 재정적인 도움으로 1925년에 귀국 길에 오르게 되었다.

그는 여러 달 동안 고국에서 러시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는 곳마다 성경을 요구하였고 성경과 바꾸기 위해 목식, 심지어 가죽까지 팔고 왔다. 그래서 재정적인 도움과 러시아인 사역자들을 모이기 위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러시아의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여 1930년 이후로는 마음대로 여행할 수도 복음을 전할 수도 없게 되었다. 피터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자 라디오를 선교의 도구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1941년 예카테리나의 쿼터에서 HGB의 단파로 소련에 방송을 내보냈다. 철의 장막에 갇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당한 소련인이나 슬라브인들에게 대나 라디오 방송을 통해 보내는 복음의 메시지는 생명의 빛으로 조용히 퍼져 나갔다. 그 방송은 피터의 아들과 딸들에 의해 방전의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되어 복음의 등대가 되었다.

(루스키의 '선교사 열전'에서)

십자가 13

그리스도의 십자가 - 의롭다함의 근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구원을 묘사하는 단어 가운데 소극적인 면을 보여주는 그림은 '구속'이고 적극적인 그림은 '칭의'라는 단어이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부채를 탕감하여, 형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의 위험한 상태를 면제시켜 주는 것을 보여 주는 반면, 칭의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의로운 우리의 위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이 '이신칭의(以信稱義)'의 교리는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이 바울에게서 발견되었지만 사실, 이 개념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이미 발견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비유 속에서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이에 내려갔느니라'(눅 18:14)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분명히 것은 '칭의'의 개념은 바울에게서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롬 3:24). 즉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선언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선포하였다. 죄인된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는 이 일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시 자신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톰 라이트(Tom Wright)라는 신학자는 "죄가 없으면 칭의가 필요 없다. 반면에 은혜가 없으면 칭의의 가능성이 없다"고 이 부분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칭의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바울은 롬 5:9에서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었은즉"라고 말씀함으로 칭의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피임을 분명히 밝혔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속죄를 지물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그의 피에 의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는 인간의 칭의가 있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

(이성욱 목사)

그리스도 안에서

방준영 (목사, 신혼가정부 지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골 2:6-7).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알기 이전과 전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엡 2:1-10은 분명한 대조를 통하여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로 없을 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습니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사단을 쫓았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거부할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또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닐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은 사단과 나 자신이었습니니다. 하지만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사단과 나 자신에게서 그리스도 예수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신 자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삶에 대하여 골 2:7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합니다. 두 가지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뿌리 깊은 나무, 견고하게 세워진 빌딩. 이 두 가지 이미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아무리 기근과 태풍이 있어도 깊은 뿌리로 인하여 흔들림이 없고 영양분을 공급받아 사시사철 견고합니다. 견고한 빌딩 역시 그 기초가 든든합니다. 반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불어닥치는 역경 속에 판가름이 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날마다 그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분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주께서 간곡히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특별히 골로새 교회의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골로새 교회는 이단의 가르침으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 이단은 영지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입니다. 이들 가르침의 해악적인 요소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예수로는 충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그들의 특별한 영적지식을, 율법주의는 율법의 행위를, 신비주의는 주관적인 체험을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충분한 대안이 되십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유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있으니까(골 2:9-10a).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차고 넘치는 은혜

번기삼 (신혼가정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며 그분은 언제나 최고와 최선의 길로만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생각난다. 그 최고의 길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평안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며 그 어려움들 통해서 우리가 주를 더욱더 찬양하게 하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신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곤 한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분에게 주신 큰 축복을 잘 모르고 또 기도를 반복하곤 했었다. 그 축복은 어떤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바로 세상에서의 축복을 바라며 마음이 합당한 기지세록 가운데 입으로 풀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많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고 계신데, 나의 초점이 세상을 향하고 있어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쁨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히 6:17).

그렇다. 우리들은 이미 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이라는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축복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세상에만 안주하기 위해 발버둥치며 보다 실망하고 낙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받은 축복 "하늘의 축복"이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 가정은 일 주일에 세 번씩 가정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절대자와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은총인가!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보여주시신 것같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커다란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아닌가!

주님을 닮는 삶

홍인권 (신혼가정부)



우리가 살면서 자신이나 타인에게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중 하나가 "당신은 얼마나 가치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 일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자신이 무엇을 소망하고 이루어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의견차를 보인다. 우리는 당연히,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행복에 소망을 두지만 성도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행복 앞에서 하늘의 소망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 어떤 일들을 할 때, 항상 인간적인 목적으로 일을 하다가 꼭 막판에 이르러서야 나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곤 한다. 항상 이렇게 허둥대는 이유는 무엇일까?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살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내 속 사마르로는 하나님께는 즐거워되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0-24).

내가 자주 쓰러지는 것은 내가 나 스스로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나는 실로 곤고한 사람이다. 사명의 몸이다. 이 사명의 몸에서 나는 어떻게 나와야 할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롬 8:9).

이 사명의 몸에서 건져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고 내가 온전히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성경에 근거한, 말씀에 근본을 두고 주님을 닮아가려 하는 삶. 그런 삶이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삶이며 진정 가치있는 삶이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을 믿는다. 다시 한번 나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세우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다.

블리우신 주의 이름

13. 예수 (눅 1: 30-31)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의 다른 이름들을 살펴봄으로 예수가 어떤 본인지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그의 공식적인 이름이며 그가 가장 많이 불렀던 이름 '예수'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왜 그 이름을 사용하셨어야 했는가?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하며, 구원의 핵심이 되는 그 경이로운 이름 '예수'를 살펴보자.

'예수'는 "여호와라는 구원이시다"를 의미하는 '여호수아'의 헬라어 어형이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나 여호수아는 구원의 완성을 대표한다. 출애굽 이후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으나 들어갈 수 없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는 율법을 완성하시므로 모세와 비유되기도 하고, 그 이름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므로 여호수아와 비유되기도 한다.

한 신앙 서적에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은 우상숭배인 것처럼 묘사한 것을 보았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름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구원의 축으로 놓고 있다. 그 이름이 그냥 이름일 뿐이며 이름 이외에 아무 의미가 없다면, 왜 천사가 직접 나타나 그 이름을 계시하든 모든 무릎을 예수에 앞에 꿇게(빌 2:10-11) 하셨는가? 우리가 기도를 할때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어리석은 행위인가? 예수라는 이름은 그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진정 예비된 구원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이다.

예수는 실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부터의 구원과 죄에 대한 승리를 주시기 때문이다. 오직 그만이 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 이것을 위해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하늘로 올라가서 저 지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그렇다. 그 이름 예수는 하늘에서 주어졌고, 역사적으로도 위대하셨으며 지금도 완전한 은혜로 우리 안에 있다. 그 이름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아무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마귀는 여전히 그 이름을 미워하고 세상은 여전히 그 이름을 반대하나, 그 이름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고 기도의 문과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 그 이름은 회개와 복사를 유발하는 자극제이며 마음과 입으로 기뻐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게 한다.

(원효 기자)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줄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줄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너 우편에서 네 곁이 되시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지 아니하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시편 121편).

믿음의 길에 들어서자마자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고 단단한 바닥에 부딪혀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에 들어서면 많은 이들은 그들이 만나는 뜻밖의 곤경에 놀랍니다. 곤경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전혀 다른 것, 즉 어떤 동산이나 새 예루살렘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돌연 현실에 눈뜨게 되면서 도와를 손잡고 찾아 사방을 둘러봅니다. 그럴 때,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다가가, 우리가 그토록 길로 행하고 있으며 엉뚱한 곳에서 도움을 찾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또한, 바른 길을 보여주고 '바귀의 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도록 회개를 독려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 곤경에 처해 주변을 둘러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묻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도움을 얻기 위해 사방을 둘러볼 때, 무엇보다도 하늘을 배경으로 한 영감을 고취시키는 장엄하고 든든한 산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쓰이고 불린 당시, 팔레스틴은 온통 이고 승배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이교들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토지를 비옥하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고 재앙에서 지켜준다는 말에 비호되어, 산당에서 바리새와 아새라 등에게 제사를 지냈고, 환난을 막을 무적과 무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신앙 노정에 오른 히브리인들도 산비탈에서 이와 같은 광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제자들 역시 뜻밖의 사람처럼 도움을 구할 때, 일시에 뻗어오는 순환 거점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점음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비호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까지 함께 상하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제 13:14).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먼 산을 바라보면 구한 도움은 절망으로 끝납니다. 그 장엄하고 견고한 산에서 행해지는, 불시에 엄습할 재난을 막아 준다는 약속,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과 사제들의 현혹, 그 모두가 거짓입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의 머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렘 3:23). 그래서 시편 121편에서 순례자는 눈앞의 든든하고 안전해 보이는 것을 최대한 이용하는 종교를 거부합니다. 대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도움은 피조물이 아닌 창조자께서 옵니다. 창조자는 늘 깨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바람,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긴 낮잠에 취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자는... 후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왕상 18:27).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출입을 지키시라' 우리의 시작과 끝을 돌보시는 시간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길을 막 때만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지 아니하시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결코 사고를 당하거나 다칠 일도 없고 어떤 열로도 하지 않을까요? 시편의 약속은 우리가 결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일조차 없을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어떤 상황이나 질병, 사고, 교통사고도 우리에게 악한 능력을 행사해서, 우리를 향하신 신의 뜻에서 결코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가혹한 신의 단련을 우리에게 하라. 세상에서는 회개와 신앙 생활이 역경을 면케해 줄 것이라는 암시는 희미하게라도 비친 적이 없습니다. 말씀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모든 악의 영향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룸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요 16:33).

(다음주에 계속)
(임혜원 기자)

다음 주일 찬송

283장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영국 교회의 에드워드 헨리 비커스테스(Edward Henry Bickersteth, 1825~1906) 주교가 1872년에 쓴 성찬 찬송가로, 주제를 강하게 부각시키며 시적 표현이 아름답고 순수한 리듬에 상쾌한 감정을 준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새 생명을 누리실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한 나머지 떨리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이다. 성찬의 근본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희생을 영적으로 자신에게 적용시키며 주님의 재림 때까지 그 구속 사역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이다(고전 11:26). 그렇다면 성찬식을 평소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한다. 주님의 대속의 죽음이 바로 자신을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없는 자는 그 예식에 참여하지 못한다.

1절 비록 주의 성전에 참여하였으나 죄인된 몸으로 성전에 참여할 자격이 없을을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주님의 공로로 의지하여 떨어 붙어 앉으니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간구이다.

2절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이나, 주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최선의 말씀을 간구할 따름이라는 것이다.

3절 한 번만 주님의 음성 들어도 마귀의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4절 실컷 방황하던 죄인이 와보니 이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죄를 대속하셨고, 온 성도들과 함께 환영하며 주의 잔치에 앉아 먹으라고 명하시는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다.

5절 주의 떡과 잔을 받으니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먹고 마시자는 것이다.

셋째 단 전체를 크레센도(점점크게)하여 넷째 단에서 강조한 후 다미뉴엔도(점점여리게)한다. 주의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떨리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부른다.

(찬양위원회)

+ 양호실

5교구 기용영 학생(여24세) 다음 달 경 남동생으로부터 골수이식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환우와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을 준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7교구 유은순 성도(여90세) 고관절이 골절되었는데 치료가 불가능하며 통증이 심해 진통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가라앉고 뼈가 붙도록, 성도의 자녀들이 이 어려움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여 신앙생활하도록 계속 기도해 주세요.

14교구 강종근 성도(남83세) 골반 골절로 골반 부위에 철심 삽입 수술을 받았는데 많이 회복되어 걷기도 합니다. 건강이 회복되어 신앙생활하는 것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 기도해 주세요.

17교구 심상국 성도(남72세) 위암으로 통증이 심하고, 체중도 급격하게 줄었으며 식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평안하도록 계속 기도해 주세요.

※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윤성환 ♥ 변진영 예비부부를 소개합니다



그래픽디자인이나 변진영 성도는 어릴 때 잠시 주일학교에 다녔을 뿐, 이제서야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교회에 다녔다겠다는 생각은 항상 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었는데, 윤성환 성도와 교제하면서 적극적 전도와 권면을 받고 충헌교회에 나왔습니다. 건물이 커서인지 첫 인상에서 권위적인 느낌마저 들었으나, 새가족부 집회에 참여하면서부터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례교인인 윤성환 성도와 예배와 집회에 함께하며 늘 옆에서 도와주어 기쁩니다. 이제 신앙생활한 지 서 달밖에 안 돼서 아직 예수님을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그 자리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새가족부에 올 때마다 반겨주시고 모두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담임 교사의 모습이 참 인상 깊습니다.

(한숙정 통신원)

아이들의 질문

유미경 (중동1부 신일반 교사)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생활을 했던 내겐 새가족, 혹은 신입반이라는 말이 항상 남의 일로만 여겨졌다. 작년에도 중동1부 신입반 교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기대감보다는 내가 경험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잘 섬김과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란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었다. 신입반은 교회에 처음 나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어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아이들이었다. 그런 신입반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함께 나누는 가운데 나를 당혹케 했던 질문들도 많았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요. 어떻게 해요? 진짜 목소리가 들려요?”, “진짜 예수님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져요?”, “천국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나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어볼 때, 오히려 난 질문을 하는 아이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아이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신입반으로 부르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습관적인 신앙! 습관처럼 그냥 교회라는 공동체의 분위기에 휩쓸려 끌려다녔던 신앙,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며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계획하심을 느끼게 하셨다. 아이들의 질문 하나하나를 바로 주님이 나에게 던지시는 것이었다. “정말로 나를 믿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입술의 고백을 듣고 싶구나”.

날마다 새롭게 주님께 나아가는 내 모습을,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신입반의 귀한 아이들을 섬기게 하셨음을 깨달았다. 타성에 젖기 쉬운 모태신앙인 내게 주님께서는 정반대 환경의 아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는 법을 알게 해 주셨다.

이제는 가르치는 말씀과 신앙이 아닌, 나의 감사와 회개의 고백들로 채워가야 할 시간들이다. 십자가의 승리의 짜릿하고 당당한 기쁨을.

주께

양효진 (중동3부)

주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해도
항상 내 뒤에서 내 등을 밀어주는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를 생각합니다.

언제나 생각나는 그 분, 처음 그 분이 주님이란 걸 알았을 때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나를 세상에 있게 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몰라주시는 주님을 수도 없이 원망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모든 계획이 날 위한 것임을 알고난 후
이제야 알아버린 내 자신이 바보처럼 보입니다.
감사히 얻은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느끼고 싶습니다.
단절된 내 마음을, 단절된 내 영혼을 열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믿음의 학교에서

미가의 우상숭배

사사기 17장부터는 사사기의 패턴(만역-보용-회개-구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 즉 우상숭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삿 17:1). 미가의 어머니는 온 일월말뚝을 잃어버리고 저주를 씌웠다. 어머니의 저주하는 말을 들은 미가는(삿 17:2), 그 저주가 자신에게 내려질까 두려워 훔친 돈을 되돌려 줬다. 미가의 어머니는 훔친 돈을 기뻐하며, 아들을 저주의 뒷에서 풀어내기 위해 그 중 일부를 취하여 가증스러운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경건하게 섬기는 척 하면서 나름대로의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것을 여호와에 대한 간절한 신앙의 표현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모르는 모습이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롬 1:23).

그리고 미가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신당을 세웠습니다(삿 17:5). ‘에봇’은 대제사장의 겹옷입니다(출 28:6-8). 에봇을 우상화 한 것은 기드온 때부터입니다(삿 8:27).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에서 취한 전리품으로 에봇을 만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념하려 했지만, 기드온의 선한 의도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섬기고 있었습니다(삿 8:27).

그리고 미가가 독단적으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서 세운 것을 보면 당시의 타락한 이스라엘 사회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제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으로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이 그 직분을 세습도록 되었는데 말입니다(출 28:1).

그후 미가는 레위족속의 한 소년을 데려다가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기까지 합니다(삿 17:13). “이제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삿 17:13). 미가에게 있어서 여호와와는 드라빔과 같은 수호신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바라는 제사장은 백성을 말씀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물질적 축복을 해줄 자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자기 나름대로 우상을 갖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을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하나님의 중보, 축복을 빌어 준다는 것 자체가 우상입니다. 중보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분 뿐이기에 때문입니다. 외적으로는 종교의 모습을 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복(福)을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로 갖고 있을 뿐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룩한 삶의 활동들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봉사는 교만을 낳고, 교만은 자의의지를 낳게 되고, 자의의지는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도록 빚어지는 대신에 우리 자신들을 채워 줄 우상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사두아렐 리도우더).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전에 옴은 대로 행하였더라”(삿 17:6). 이스라엘(우리의) 왕, 이스라엘(우리의) 영적 주인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열심은 하나님에 대한 만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렘원칙 10:10)

진리의 샘

요한복음(John)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④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독특하게 사용되는 용어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우선 ‘아들’이라는 말인데, 독특하게 ‘인자’ 또는 ‘하나님의 아들’ 등과 같은 수식어가 없는 그냥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며 자신은 아들’이라는 부자관계의 매우 긴밀한 연합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는 학자들(Donald Guthrie) ‘신약에서 요한복음처럼 하나님의 아버지되심을 강조한 곳은 없다’고 하였습나다(다른 책 공동번역에서 ‘아버지’가 모두 70번 기록된 것에 비해 요한복음에서는 119번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본들에서 요한복음을 읽다가 ‘아들’이나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타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신적 연합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한 것도 요한복음서본입니다(요 1:1,4, 요일 1:1, 제 19:13). 그래서 요한복음 1:14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표현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 이시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확증하는 말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했듯이 대로 요한복음은 읽고도 어려운 역설적인 성경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대해야 하는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모습들을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믿음으로 구원을 얻듯이 믿음으로 건너야 할 은혜의 바다를 건넌다는 뜻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본들에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그 목격자로 나사렛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김동혁 목사 (출판국 지도)

모의

- 남녀전도회

- 법 제

- 이번주 새벽기도회 담당

	28(월)	29(화)	30(수)	31(목)	11/1(금)	11/2(토)	11/3(주일)
설교자	위건량	김익환	김정수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정진호
기도자	박영식	홍원석	김인술	조석구	신선걸	장해구	최문실

출현교회에서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음향실(초보자도 가능) 2. 자격 세례교인
3. 제출 서류 자필 이력서·주민등록등본·당회장 추천서(타교인인 경우)
4. 서류 제출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천현교회 사무국 ☎ 552-8200

1992年 卷之五

사람보 차량복사자 모진

봉사시간 : 주일 08:00~10:30 자격 : 보통 1종 운전면허 소지자 문의 : ☎552-8200(사랑부)

교회 비치용 성경찬송가를 찾습니다.

교회에서는 성경과 찬송가를 가지고 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안내서에 성경과 찬송가를 비치해 놓고 있으나 그 동안 많이 분실되어 부족합니다.
본의 아니게 집에 가져가셨거나, 각 부서에 있는 교회비치용 성경찬송가를
속히 예배위원회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2부 제9차 정기총회

일시 : 오늘 15:00 장소 : 교육관 505호

새 · 가 · 족 · 을 · 환 · 영 · 합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지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지
693	전준호	10	교역자		707	조국지	6	장년2부	조경숙(6)
694	배남일	1	장년1부		708	김팔하	6	장년2부	조경숙(6)
695	최승규	1	장년1부		709	조충일	10	사망부	
696	안승재	1	장년2부	김선희(14)	710	고희룡	14	장년2부	
697	변현희	1	장년2부	김선희(14)	711	강창영	19	예배다루	
698	신명주	1	장년2부		712	박승순	19	대학부	
699	김성렬	1	장년3부		713	김진기	19	대학부	
700	고희영	1	장년1부		714	상미로	19	대학부	
701	강은혜	11	장년부	심효숙(2)	715	김광홍	19	대학부	윤석진(15)
702	김은숙	4	장년2부	임연수(13)	716	이혜진	1	장년2부	이종숙(1)
703	김정일	4	장년2부	임연수(13)	717	고민경	1	장년2부	이종숙(1)
704	김미라	4	장년1부	임연수(13)	719	고은지	1	청년2부	이종숙(11)
705	최대홍	4	대학부	임연수(13)	720	송기진	19	장년1부	
706	소애홍	6	장년2부	조경숙(6)	722	권영일	9	요한	

* 출석교회에 하가증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보다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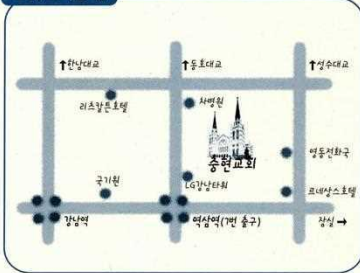
11월 주일 및 수요일예배 기도 담당

연도	일	주요예배 (장로)					찬양예배 (민주집사)	수요예배 (권사)	
		I	II	III	IV	V		I	II
11	3	이종섭	이병학	노광원	조종환	한송규	안노수	안소현	백승자
	10	안동원	김광남	최대원	김길영	최무길	최낙하	김봉덕	함미자
	17	이계인	이형욱	박영식	전홍윤	이형수	이윤원	양영자	김경순
	24	박호규	최영인	유옥철	배주식	박대양	김희선	박명연	이은자

결혼

1. 이복남 군(현명) 성도의 아들과 군정 역(역) 장(장)인 김(김)자, 여현진 김(김)의 딸, 11교구 / 31월(월) 1330, 김(김)원복
2. 이복남 군(현명) 성도, 순선 씨의 아들과 순(순)인영 김(김)의 딸, 11교구 군정 역(역) 장(장)인 김(김)자, 여현진 김(김)의 딸, 17교구 / 11월(월) 22월(월) 1500, 조(조)수현 씨의 딸, 17교구
3. 김(김)구경 군(현명) 성도, 소(소)은 씨의 아들, 11교구와 박(박)정 역(역) 장(장)인 김(김)자, 여현진 김(김)의 딸, 11교구 / 22월(월) 1330, 남(남)은 씨의 딸(태)영(영)을 출생함 / 22월(월) 2230
4. 노(노)은진 군(현명) 성도, 김(김)은진 씨의 아들, 11교구와 박(박)정 역(역) 장(장)인 김(김)자, 여현진 김(김)의 딸, 8교구 / 11월(월) 22월(월) 1330, 서(서)정 나(나)리라고 함
5. 서(서)은우 군(현명) 성도, 나(나)은복 김(김)의 아들, 11교구와 윤(윤)정 역(역) 장(장)인 김(김)자, 여현진 김(김)의 딸, 11교구 / 11월(월) 22월(월) 1500, 여현진 김(김)의 딸, 11교구
6. 김(김)구경 군(현명) 성도, 장(장)은복 씨의 아들과 노(노)은진 김(김)의 딸, 배(배)나리 김(김)의 딸, 7교구 / 11월(월) 7월(월) 1330, 김(김)원복
7. 이복남 군(현명) 태(태)정 성도, 지(지)은영 성도(의)의 아들과 김(김)나리 김(김)원복(복) 김(김)자, 이(이)하영 김(김)의 딸, 9교구 / 11월(월) 19월(월) 1330, 김(김)원복

교회 오시는 길



예배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요예배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본당
		(주요 화제와 동시행위 예배)	
	IV	오전 1:00(국악예배특별예배)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들이 드리는 예배)	
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양요예배		1호전 11:00 2호후 7:00	본당
금요집회		오후 7:0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기도원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화요일집회	오전 11:00	버스: 오전 10:00 분당 앞 출발
금요일침야	오후 10:30	버스: 금요일집회 후 분당 앞 출발
기도원 차량 운행: 월, 목 오전 10:00 / 월, 화, 목 오후 7:00 (동문경비실 앞 출발)		

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몰사 김성관

■ 시무장으로

이철 신교필	김호준 신교필	노영현 신교필	오근권 신교필	이병학 신교필
윤원희	최태원 신교필	엄정섭 신교필	김도윤 신교필	오현일 신교필
이 훈 신교필	남남우 신교필	정문식 신교필	김영림 신교필	문종구 신교필
조인재 신교필	김종구 신교필	최두길 신교필	김진철 신교필	이창호 신교필
차진숙 신교필	박영식 신교필	김광남 신교필	이종식 신교필	이희영 신교필
이병욱 신교필	안종욱 신교필	임무현 신교필	이종섭 신교필	최기홍 신교필
이갑재 신교필	전종욱 신교필	전종필 신교필	이정우 신교필	김대우 신교필
황영일 신교필	한승균 신교필	김진수 신교필	정종식 신교필	김환기 신교필
원복희 신교필	이형수 신교필	안도현 신교필	황의민 신교필	조기형 신교필
최유덕 신교필	이계인 신교필	박영양 신교필	이태식 신교필	정태두 신교필
박용구 신교필	권민욱 신교필	조춘환 신교필	배준식 신교필	김영달 신교필
이실호 신교필	박진섭 신교필	최치용 신교필	노영남 신교필	박철구 신교필
정경집 신교필	신상수 신교필	강현철 신교필	고재승 신교필	김영은 신교필

■ 부목사

이종대 27년	정원민 12년	김동하 27년	서광진 27년	박기인 44년
이성기 32년	류병태 17년	김동목 17년	이종철 32년	김영훈 32년
이국근 152년	김보성 112년	이수근 152년	이유진 152년	안광철 152년
방종열 62년	이종열 62년	정진호 12년	김용덕 12년	이성훈 102년
고광한 142년	김희만 50년	원기환 12년	김익한 102년	김경수 102년
장 훈	임현덕	이희석	최종철	하종철

■ **천안감독** 강임구

■ **강 도 사** 김윤식 김성림

■ **아전도사**

정원희 92년	신동주 92년	윤은진 92년	한영준 142년	김진석 172년
홍순애 102년	이수진 52년	김발자 52년	만태순 62년	김경민 132년
조옥자 72년	리필원 162년	김정선 72년	장해구 132년	최문선 112년
전은희 192년	김갑순 122년	김정자 152년	이수경 192년	

■ **다기문교사**

■ **다기문선도선교사**

■ **현역선교사**

강기영	조영배
최희아	신성환
최희아	최희아

중형중보의 창

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② 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히게 하소서

③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④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5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⑤ 교구별 태신자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하여 총현교회가 민족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소서

㉑ 단기선교를 통하여 총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